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유 효 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3세 유아 35명과 4세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애착 Q-set로 측정하고 정서지능은 교사에 의한 평정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3세와 4세간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인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는 전체 정서지능뿐 아니라 타인인식 및 타인조절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회귀분석결과에는 애착안정성이 전체정서지능과 타인인식 및 타인조절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정서지능이 높을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이나 설명력은 3세 유아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애착안정성, 정서지능

*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교신저자: 유효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hyosoon@mail.knou.ac.kr

I. 서 론

최근에 심리학분야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그 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사회적 맥락 속의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심리학, 교육, 심지어 상업분야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서발달과 정서발달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애착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애착이란 두 사람간의 정서적 매력, 의존성(Chapin, 1985) 또는 유아와 주 양육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69)로 정의된다.

Bowlby(1969, 1982)의 애착이론에 의하면 유아의 어머니(애착대상)에 대한 애착은 2차 추동이 아니라 독립된 체계, 애착체계로서 설명된다. 애착체계는 애착대상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서 유추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하는데 유아는 애착대상인 어머니를 내적 실행모델로 삼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예측한다. 그런데 이 내적 실행모델의 본질과 질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애착대상과 갖는 반복적 경험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된다(Bowlby, 1982). 즉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적절하게 응했느냐, 유아가 보호와 안전이 필요했을 때 부모의 위로가 쉽게 주어졌느냐, 애착대상이 유아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애착대상의 가능성과 반응성에 따라 내적 실행모델의 질이 다를 뿐 아니라 유아는 안정감을 다르게 형성한다는 Bowlby의 주장을 토대로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1978)은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실험상황을 만들어 영아의 애착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영아의 애착을

안정애착과 불안 회피 및 불안-저항애착으로 나누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낯선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주저함이 없이 접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일관성 있게 주위에 있는 실행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를 거부적이며, 간섭적이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일관성 있게 주위에 있지 않는 실행모델로 본다.

부모와의 안정애착관계는 유아가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있는 존재로서 보게 하므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줌을 여러 연구들(Bowlby, 1988; Erikson, Sroufe & Egeland, 1985; 유효순, 1992; Sroufe, 1983; Sroufe & Fleeson, 1986)이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안정애착관계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성장을 촉진한다(Bowlby, 1988).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더 자신감이 있고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보였으며(Erikson, Sroufe & Egeland, 1985), 또래에 의해 더 긍정적으로 평정되었다(유효순, 1992). 또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었고, 또래의 행동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Sroufe, 1983), 또래에게 감정이입을 더 잘하였다(Sroufe & Fleeson, 1986). 이에 비해 불안 회피애착아동은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또래관계에서 쉽게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되며, 불안-저항애착아동은 타인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에서 주저주저 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였다(Sroufe, 1983).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안정된 내적 실행모델은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이것은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또래에 감정이입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서지능과 관련된다(Houtmeyers, 1994).

정서지능은 일반지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정서지능은 Sternberg(1986)와 Gardner(1983)등이 지능의 개념을 확장 한 것을 기초로 Salovey와 Mayer(1990)가 정립한 것이다. Salovey와 Mayer의 주장에 의하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Goleman(1995)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Goleman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며 정서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는 일반 인지적 정보와는 다르게 처리된다(Gardner, 1983; Salovey & Mayer, 1996). 즉 정서지능은 일반지능과는 다르며 사회적 기능, 정신적 건강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며 정서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그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촉진하게된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 EQ)는 전통적인 IQ보다 사회적 적응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Goleman, 1995).

이러한 정서지능의 발달에 대하여 김경희(1998)는 정서지능은 기본적인 심리과정에서 고차원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과 다른 발달과의 관계를 주로 살피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정서의 이해와 그 감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되며(Hughes, Tingle & Sawin, 1981), 정서의 이용에서 만족지연을 더 하였던 유아는 청소년이 되어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Yates, Lippett & Yates, 1981).

정서지능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정서지능의 모든 요인을 함께 연구한 것이 드물며 주로 각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결과에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김경희, 김경희, 2000). 예를 들어 김경희(1996)는 정서조절은 아동중기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Reissland & Harris (1991)는 정서조절이 유아기나 아동초기에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발달이 유아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은 여러 애착연구가들(Sroufe, 1997; Cassidy, 1994)의 애착과 정서적 반응 간에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주장에서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roufe는 애착을 영아가 정서적 긴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정서통제능력을 확장하게 하는 주 양육자와의 쌍방 정서통제체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Cassidy는 한 개인의 정서전략조직은 애착유형과 일치하는데 이는 부모와의 반복적인 정서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애착 경험에 의해 정서통제에 개인차가 나타나는 등 정서발달이 애착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Laible과 Thompson(1998)은 취학 전 유아의 애

착안정성과 정서이해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Kochanska(2001)는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발달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Kochanska에 의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연령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화를 덜 내는 반면 불안애착 유아는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였다.

한편 Bowlby(1973)에 의하면 유아가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한 자신과 타인, 또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유아의 타인에 대한 기대나 지각에 영향을 준다. 즉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한다(이영, 나유미, 1999).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에게 긍정적인 반응이나 상호작용을 하며 감정이입을 더 잘한다는 것은(Sroufe & Fleeson, 1986) 바로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정서지능발달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정서지능이 유아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론적 주장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연구 간에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서지능과 애착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자로는 Houtmeyers(1994), Krikorian(2000), 전해령(2000)을 들 수 있다. Houtmeyers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Krikorian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의 4 유형(안정, 회피, 두려움, 몰입)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Krikorian 역시 안정된 애착집단과 불안한 애착집단간의 유의한 정서지능의 차

이를 찾지 못하였으며 4유형의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상관을 찾지 못하였다.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찾지 못한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전해령은 애착과 정서지능과 유의한 관계를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를 보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안정도는 정서지능의 전체점수뿐 아니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의 조절, 타인정서의 인지 및 배려와 또래간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애착과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이론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애착의 안정성은 정서지능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계는 연령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 하는 3개 어린이집의 유아 97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중 유아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와 연구자료가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세 유아 35명과 4세 유아 32명 총 67명의 유아들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최소

28세에서 최대 42세로 평균 33.5세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6%, 대학졸업이 50%, 대학원졸업이 4%이다.

연구 도구

애착의 안정성

유아의 애착의 안정성은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 Q-set (Attachment Q-set)의 개정판(Waters, 1987)을 토대로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국내 준거개발에 사용한 애착 Q-se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aters와 동료의 애착 Q-set는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자연스런 일상생활에서 영유아가 애착대상에 나타내는 행동들을 묘사한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의 안정성과 의존성에 대한 전문가의 준거점수가 제시되어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잘 관찰한 뒤 각 항목을 1점에서 9점까지로 분류하게 되며 애착의 안정성은 연구 대상아동이 각 항목에 대해 받은 점수와 애착준거점수와의 상관계수로 계산을 한다. 즉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전 어머니에게 애착 Q-set를 보내 각 항목을 읽어보고 일주일간 자녀를 관찰한 뒤 90개의 항목을 1에서 9까지로 분류하게 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의 안정성 점수는 이영 등이 제시한 국내 애착준거점수와 각 항목에 대해 유아가 어머니의 분류로 받

은 점수와의 상관계수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최소 -.33에서 최대 .76, 평균 .40이었다. 이영 등의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 점수의 범위는 -.30에서 .74이었으며 평균 .36이었다.

정서지능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지능검사는 이병래(1997)가 개발한 ‘교사용 정서지능 관찰검사’이다. 이 검사는 Salovey와 Mayer(1996)가 고안한 것을 이병래가 수정, 번안한 후 3차에 걸쳐 현장검증 제작과정을 걸쳐 만든 것이다. 검사는 자기인식, 표현능력 7문항, 자기조절 능력 8문항, 타인인식 능력 7문항, 및 타인조절능력 9 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교사는 각 아동을 대상으로 각 검사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하위검사 중 자기인식 및 표현능력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 기분 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한 기분을 적절한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기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며 좋은 기분일 때는 유쾌한 기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 인식능력은 공감과 감정이입에 대한 능력이다. 즉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

표 1. 연구대상유아와 연령

	남아	여아	전체	평균연령	연령범위
3세	23	12	35	41.1개월	36개월-47개월
4세	18	14	32	53.6개월	48개월-59개월

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조절능력은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계수인 Chronbach α 는 자기인식의 경우 .84, 자기조절의 경우 .82, 타인인식의 경우 .91, 타인조절 경우 .68이었으며 정서지능총점은 .85이었다.

자료분석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연령간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령별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

만 3세와 4세 두 집단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3세와 4세 두 집단간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오직 자기인식에서만 유의한 ($F = 5.09, p < .05$)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점수와 총점을 보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자기조절, 타인인식, 및 타인조절과 정서지능총점에서는 3세와 4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

	만 3세		만 4세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애착	.37	.23	.42	.21	.40	.22
자기인식	25.15	4.26	27.31	3.47	26.20	4.02
자기조절	26.77	3.75	27.09	4.57	26.93	4.13
타인인식	22.83	4.22	24.03	4.79	23.40	4.51
타인조절	29.09	3.22	29.53	2.93	29.30	3.07
정서지능총점	103.94	10.54	107.97	9.10	105.89	10.00

표 3.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애착 안정도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
자기인식	.11				
자기조절	.07	-.11			
타인인식	.38**	.12	.14		
타인조절	.25*	.55**	.10	.52*	
정서지능총점	.33**	.58**	.46**	.72**	.81**

* $p < .05$ ** $p < .01$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유아의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표를 보면 애착의 안정성은 정서지능총점과 유의한($r=.33, p<.01$)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인식($r=.38, p<.01$) 및 타인조절($r=.25, p<.05$)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서지능 하위검사를 보면 자기인식과 타인조절이 유의한 상관($r=.55, p<.01$)을 보이고 있으며 타인조절은 또한 타인인식과도 유의한($r=.52, p<.01$)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3세와 4세 각 집단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가 표 4이다. 표 4를 보면 3세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정서지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서지능 총점은 자기인식($r=.66, p<.01$), 자기조절($r=.59, p<.01$), 타인인식($r=.67, p<.01$) 및 타인조절($r=.82, p<.01$)의 각 하위검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령별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계수

	애착 안정도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자기인식	-.01	.21								
자기조절	.06	.07	.04	-.29						
타인인식	.28	.47**	.12	.04	.27	.03				
타인조절	.09	.44*	.61**	.46**	.33	-.13	.36*	.69**		
정서지능총점	.17	.51**	.66**	.41*	.59**	.36*	.67**	.76**	.82**	.79**

* $p < .05$ ** $p < .01$

4세 유아의 경우는 3세 유아와는 달리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총점이 유의한 상관($r=.51, p<.01$)을 보일 뿐 아니라 타인인식($r=.47, p<.01$) 및 타인조절($r=.44, p<.05$)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 정서지능총점과 하위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인식($r=.41, p<.05$), 자기조절($r=.36, p<.05$), 타인인식($r=.76, p<.01$) 및 타인조절($r=.79, p<.01$)의 모든 하위 검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3, 4세 모두 타인조절은 자기인식($r=.61, p<.01$; $r=.46, p<.01$) 및 타인인식($r=.36, p<.05$; $r=.69,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

표 5.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

	R	R ²	F
자기인식	.110	.012	.782
자기조절	.070	.005	.320
타인인식	.382	.146	11.104**
타인조절	.249	.062	4.307*
정서지능전체	.327	.107	7.671**

* $p < .05$ ** $p < .01$

표 6. 4세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

	<i>R</i>	<i>R</i> ²	<i>F</i>
자기인식	.213	.045	1.425
자기조절	.074	.006	.167
타인인식	.471	.222	8.548**
타인조절	.444	.197	7.349*
정서지능총점	.509	.259	10.486**

* $p < .05$ ** $p < .01$

하여 애착안정성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애착안정도는 정서지능총점을 10.7%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정서지능에서는 대인관계를 6.2%, 타인인식을 14.6% 설명하고 있다.

연령별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

연령별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한 결과 3세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정서지능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4세 유아의 경우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이다. 결과를 보면 애착의 안정성은 정서지능총점의 25.9%를 설명하고 있으며 정서지능의 하위점사의 경우는 타인인식을 22.2%, 타인조절을 19.7%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3세 유아 35명과 4세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애착 Q-set로 측정하고 정서지능은 교사에 의한 평정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3세와 4세의 정서지능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기정서의 인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김경희와 김경희(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경희와 동료는 3세에서 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세와 4세간의 발달적 차이만 보면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그리고 전체 정서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조망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는 피아제의 주장이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중기에 발달한다는 연구(김경희, 1996), 유아기는 공감이나 감정이입능력의 발달이 미흡하여 자기중심적 감정이입단계에 있다는 연구(Hoffman, 1984)에 의하면 자기조절이나 타인에게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요하는 타인 인식 그리고 타인조절능력은 아직 발달이 미흡하여 3세와 4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에서 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3세와 4세간에는 정서지능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자기정서의 이용과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의 경우 3세 집단과 5, 6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3세 집단과 만 6세 집단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이지선(2002)의 연구결과는 바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애착안정성은 정서지능의 총점과 타인인식 및 타인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전해령(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전해령은 애착안정성과 자기정서의 조절, 타인정서의 인지 및 또래와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아직 미흡하지만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공감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기쁘거나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거나 그 사람이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이는 바로 공감적 능력의 바탕이 된다(Chase-Lansdale, Wakschlag, & Brooks-Gunn, 1995). 즉 안정애착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은 유아에게 타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며 타인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뿐만 아니라 타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유아의 애착과 공감적 이해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어머니의 감정에 더 공감적 이해를 하며(Denham, 1994), 또래에 대하여도(Kestenbaum, Farber, Sroufe, 1989) 공감적 이해를 더 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애착의 안정도와 타인정서의 인식 및 타인조절, 즉 대인관계와 상관이 높음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애착안정성의 정서지능 설명력을 보면 정서지능총점의 10.7%, 타인인식의 6.2%, 타인조절을 14.6%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해령의 연구결

과의 일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전해령의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전체정서지능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타인정서의 인식과 타인조절에서의 또래와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3세의 경우는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4세의 경우는 정서지능 총점의 25.9%를 설명하고 있으며, 타인인식은 22.2%를 타인조절은 19.7%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볼 때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쉽게 확장한다. 또한 이들은 또래와 협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청한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Sroufe, 1979). 따라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또래에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Sroufe, 1988) 또래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유효순 1992), 사회성 기술이 더 발달하였다(Erikson, Sroufe, & Egeland, 1985).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안정성이 타인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공감을 하는 타인 인식능력과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타인의 감정의 인식과 배려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세 유아의 경우 4세와는 달리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아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조망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는 피아제의 이론적 주장이나 유아기는 공감이나 감정이입능력의 발달이 미흡하다는 Hoffman의 주장뿐 아니라, 3세와 4세간에 정서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는 이지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3세 유아의 경우 아직 정서지능의 발달이 미흡하여 애착의 안정도와 정서지능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유아의 연령범위를 넓혀 정서지능의 발달과 애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안정애착과 불안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착안정도에는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보고되지 않으나 정서지능은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김경희와 동료, 2000) 성별에 따른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토론.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유아교육(pp.31-38). 한국어린이육영회.
- 김경희 (1998).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김경희 (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34.
- 유효순 (1992). 유아의 애착과 사회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15 473-491.
- 이병래 (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지선 (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해령 (2000).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지능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Y: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Y: Basic Books.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Ed.), *Biological and behavioral foundations of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83.
- Chapin, J. P. (1985). *Dictionary of Psychology*. NY: Bantam Doubleday Dell Group.
- Chase-Lansdale, P. L., Wakschlag, L. S., & Brooks-Gunn, J. (1995).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aring in children and youth: the role of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8, 515-556.
- Cohn, D. A., Patterson, D.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3-346.
- Denham, S. A. (1994). *Emotional development in*

- young children. NY: Guilford.
- Eri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Monographs pment*, 50, 147-166.
- Gardner, H. (198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 Goleman, E. L.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Y: Bantam
- Hoffman, L. W. (1984). Work, family,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R. D. Park(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The fami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utmeyers, K. (1994)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preschoolers*.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indsor. Doctoral dissertation.
- Hughes, R., Tingle, Jr. B. A.,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Kestenbaum, R., Farber, E. A., & Sroufe, L. A.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among preschoolers. In N. Eisenberg(Ed.),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s*, (51-64). San Francisco: Jossey-Bass.
- Kochanska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2), 474-490.
- Krikorian M. (2000). *Emotion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Attachment Typ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Detroit Mercy. Doctoral Dissertation.
- Laible, D. J.,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38-1045.
- Reissland, N., & Harris, P. (1991).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in pride-eliciting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3), 431-43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Y: Basic Books.
- Sroufe, L. A. (1979).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462-516). NY: John Wiley & 97). *Emotional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1983). Infant caregiver attachments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16, pp.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18-38).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Hillsdale, NJ: Erlbaum.
- Sternberg, R. J. (1986).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rology and the organization

-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41-65.
- Yates, G. C. R., Lippett, R. M. K., & Yates, S. M. (1981). The effects of age, positive affect induction, and instructions on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69-180.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of Children's Attachment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Hyo Soon You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of children's attachment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was examined in 35 children of 3 years old and 32 children of 4 years old. The security of attachment was evaluated by attachment Q-set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evaluated by teachers' rat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ecurity of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score, appraisal and expression of other's emotion, and regulation of other's emotion(interpersonal relation). The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contribution of the security of attachment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these results were not found in 3 years old children.

Key words: attachment security, emotional intelligence